



말씀 · 기도 · 감사 그리고 선교

주님 성탄 대축일

2022년 12월 25일(제565호)

성 당: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Office Hour: 화·목·금·주일 9AM - 2PM  
E-mail: office@tvkcc.org / 홈페이지: www.tvkcc.org

사무실: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c/o St. Elizabeth Ann Seton Church  
4001 Stoneridge Dr. Pleasanton, CA 94588  
TEL 925 - 600 - 0177

미사	교중 미사	주일 오전 9시 30분
	English Mass	주일 오전 11시
고해성사	평일 미사	화·목·금요일 오전 9시 30분
	주일 / 평일미사 전	오전 9시 - 9시 25분
유아세례	사무실로 문의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신심단체	레지오 마리아: 주일 / 평일미사 전후
	울드레아: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성시간	성령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입당\_107 봉헌\_220, 512 성체\_156, 특송 파견\_112 / 해설\_손영채(아네스) 제1독서\_조원정(패트릭) 제2독서\_송경혜(아네스)  
Narrator\_Augustine Sung 1st Reader\_Teresa Lee 2nd Reader\_Emiliana Lee Prayer\_Linda Park

입당송 | 이사 9,5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 가라 불리리라.

제1독서 | 이사 52,7-10 Isaiah 52:7-10

<땅끝들이 모두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화답송 | 시편 98(97), 1,2-3 4,3 4,4-5-6(◎ 3드) Psalms 98:1, 2-3, 3-4, 5-6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ving power of God.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wondrous deeds; his right hand has won victory for him, his holy arm.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in the sight of the nations he has revealed his justice. He has remembered his kin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 the house of Israel.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리라.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lvation by our God.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break into song; sing praise.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리라. 쇠 나팔 뿜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 Sing praise to the LORD with the harp, with the harp and melodious song. With trumpets and the sound of the horn sing joyfully before the King, the LORD. ◎

제2독서 | 히브 1,1-6 Hebrews 1:1-6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Alleluia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 A holy day has dawned upon us. Come, you nations, and adore the Lord. For today a great light has come upon the earth. ◎

복음 | 요한 1,1-18 <또는 1,1-5,9-14> John 1:1-18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영성체송 | 시편 98(97),3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우 리 하느님 - 의 구 - 원 을 온 세 상 땅끝마 다 모두보 - 았 네

“새로 나오신 신자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않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요청

윤창섭 안드레아, 이한아 안나, Teresa Lee, Yong Ah Lee, 최영숙 마리아, 윤정의 알폰소, 이원숙 글라라, 박길순 수산나, 이순옥 데레사, 배춘자 로사리아, 양정미 (Suzie)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성탄의 분위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본 것이 아니기에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 쇼핑몰, 호텔 등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빵집이나 레스토랑이라고 응답하는 이들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앞서 열거한 곳들은 성탄이 되면 가장 분주해집니다. 백화점의 야외 조명은 일 년 중 성탄을 전후로 가장 화려해집니다. 쇼핑몰과 호텔 등도 크리스마스 특가, 크리스마스 패키지 등의 상품을 내놓으며 성탄을 가장 열심히 준비하는 업종입니다. 빵집은 한가득 케이크를 만들어 쌓아놓고 손님들을 기다리며, 레스토랑도 미리 예약한 손님들로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탄은 가족, 친구, 연인과 즐겁게 보내는 날일까요? 파티와 잔치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성탄을 잘 보낸 것일까요?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은 물론 지금과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낭만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성탄을 기억하려 꾸미는 구유는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깨끗한 지푸라기가 놓여있으며 귀여운 동물들이 평화롭게 주변을 감싸는 모습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깨끗한 물한 바가지 얻기 쉽지 않은 곳,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시큼하게 코를 찌르는 곳, 낯선 불청객을 마주한 동물들의 위협적인 움직임과 울음소리가 뒤섞인 인생 막장 같은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문틈을 뚫고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맨살을 드러내기 어려운 그 처참한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모습,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강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탄생 스토리를 비참하다 말하면서도 숨기지 않고 가장 위대한 탄생, 거룩한 신비로 기억하는 것 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태어나실 마구간은 어디일지 묵상 해봅니다. 큰비가 오면 속수무책으로 빗물이 들이치는 반지하, 빵 만드는 기계 앞에서 밤새워 일하면서도 끼임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청년 노동자의 공장, 도심에서 일어난 황망한 참사에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집, 그렇게 화려한 조명 뒤, 잊혀진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요한 1,14)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요한 1,10)했다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억하는 이유,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렇게 낮은 곳으로 먼저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은 아닐까요?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 |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p><b>김수정 REALTOR®</b> Soo Jung (Julia) Kim KELLERWILLIAMS   DRE 02049482 925.416.9249 kw julia.kim@kw.com</p>	<p><b>대 건 한 의 원</b> 한의학 박사 이준 침, 안약, 체중조절, 통증조절, 체질감별, 건강상담 6990 Village Pkwy #212 Dublin, CA 925-765-9755</p>	<p><b>STEVE G KIM DDS</b> Family &amp; Cosmetic Dentistry Dr. 김진만 치과병원 111 Deerwood Rd. Suite350 San Ramon, CA 94583 925-718-8970 / sgkdental@gmail.com www.sgkdental.com</p>	<p><b>Tri-Valley Orthodontics</b> Jesse H. Ko DMD / Anne Yoon DDS 111 Deerwood Rd. Ste. 185 San Ramon, CA 94583 ph. 925-272-7868 www.tri-ortho.com</p>
<p><b>N² ART &amp; DESIGN</b> Private and Group Art Lesson 650-766-0972 n2artndesign.com n2artndesign@gmail.com</p>	<p><b>부동산 거래 필수 에이전트!</b> <b>탐탁 부동산</b> TOM TAHK / 토마스 408-499-6543 / realtor.tahk@gmail.com *탐탁하다: [형용사]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p>		<p><b>민화교실</b> 전통민화 / 모던민화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지도해 드립니다 Cell (925)818-0770 fremontart@yahoo.com</p>



# 5분 묵상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20일 “아기 예수님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한다”면서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이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복讎 동포들과 전쟁의 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포함한 세상 온 누리에 주님 성탄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정 대주교는 이번 성탄 메시지의 주제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로 정했다. 현대사회가 피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도록 부추겨 눈을 들어 멀리 보고 높게 보는 법을 잊은 것을 넘어 멀리 바라보자는 의미다.

정 대주교는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배타와 배척, 대립과 대치를 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피상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서로를 경쟁자로만 여겨 밀치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와 더 높은 가치를 볼 수 있을 때, 실은 우리 모두가 서로 이웃이고 함께 나아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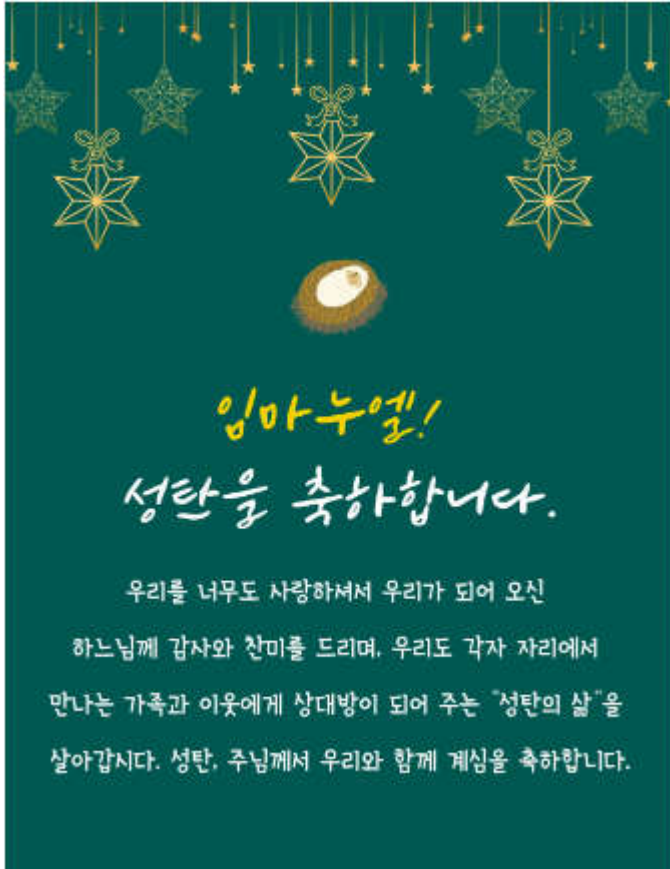
길동무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춘천교구 김주영 주교도 이날 성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주교는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탄생한 아기 예수는 지금 꿈을 잃어버린 이들, 가난하고 고립된 삶에 숨이 막히는 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시어 모든 것의 희망이 되셨다”면서 “모든 것에서 가난해 보였지만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 구유는 생명의 양식인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했다.

이어 “성탄은 불확실함과 두려움의 감정을 새로운 사랑의 힘으로 바꿀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면서 “주변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무관심을 떨치고, 동참하고 연대하는 신앙인들로 거듭나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태한 무관심에서 깨어나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귀를 열어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가 모든 이들 안에서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출처: 서울신문

<p>CPA 조미정 (카타리나) <b>조미정 공인회계사무소</b> 6602 Owens Dr. #200 Pleasanton, CA 94588 Tel) 925-803-0200 jenny@jchocpa.com</p>	<p>새 차 13개 자동차 매장에서 도와드립니다 <b>HANLEES AUTO GROUP</b></p>  <p>잭성 직통: 510-283-6310 CELL: 510-776-5856</p> <p>HILLTOP FREMONT FAIRFIELD NAPA DAVIS SUE CHO CELL: 530-220-2848</p>	<p><b>PARK CHIROPRACTIC</b> Dr. Joon Park Office (925) 355-1450 Cell (925) 997-1257 7027 Dublin Blvd. Suite #101 Dublin, CA 94568</p> 
<p><b>HARMONY ACUPUNCTURE</b> 석은경 아가다(Agatha Suk L.Ac) Tel 510-889-8062 917 C St. Hayward, CA 94541 www.harmony-acu.com harmonyacupuncture1@gmail.com</p>	<p> <b>Dublin Pediatric Dentistry &amp; Orthodontics</b> 소아치과   교정 전문의 Elizabeth Jihyun Kim, DDS, MS 11920 Dublin Green Drive, Dublin, CA 94568 (925) 833-1900   smiles@dublinpdo.com www.dublinpdo.com</p>	<p>COMPASS  REALTOR®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b>AIDEN KIM</b> 에이든 킴 (니콜라오) 부동산 925.389.2463 Aiden.kim@compass.com</p> <p>DRE # 01983236  TIM MCGUIRE TEAM</p>



- 성경 통독 안내서 <말씀 살기> 판매
  - <말씀 살기> 신/구약 1년(1월 1일 - 12월 25일) 성경 통독 안내서
  - <신앙 입문자 말씀 살기> 성경을 처음 읽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 <매일미사> 판매 장소에서 문의 및 구입 가능

- 겨울 옷, 코트 수집 ( St. Mary's Dining Room)
  - 품목: 새것 혹은 새것같은 겨울옷, 코트
  - 일시: 2023년 1월 15일, 1월 22일
  - 장소: St. Elizabeth 성당 입구
  - 많은 분들이 따뜻한 겨울옷을 필요로 합니다. 미리 정리해서 준비해 두셨다가 도네이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Offertory and Donations

주일헌금		교무금	성소후원	Bishop's Appeal	합계
교중미사	English Mass				
\$1933	\$257	\$7080	\$665	\$665	\$10600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 **교무금(Inquiry of Annual Pledge)**  
김성치(12), 김수정(1-12), 김승희(7-12), 박종태(10-12), 박주암(12), 신계완(1-12), 이예진(11,12), 이희열(12,1/2023), 장진환(1-12/2023), 조윤나(11,12), 주영근(11,12), 하성근(10-12), 하창완(12), 홍사현(12)
- **성소후원(Vocation Promotion)**  
김성치(12), 김승희(7-12), 박종태(10-12), 신계완(1-12), 이희열(12,1/2023), 장진환(1-12/2023), 주영근(11,12), 하성근(10-12), 하창완(12), 홍사현(12)
- **Bishop's Appeal**  
김성치(12), 김승희(7-12), 박종태(10-12), 신계완(1-12), 이희열(12,1/2023), 장진환(1-12/2023), 주영근(11,12), 하성근(10-12), 하창완(12), 홍사현(12)
- **건축헌금:** 조재우

■ 12월 주요 전례 일정

- 12월 24일(토):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오후 8시
- 12월 25일(주일): 주님 성탄 대축일(미사 중 유아세례)
- 주일학교 방학: 12월 25일 - 2023년 1월 15일 (1월 22일 개학)
- 12월 29일(목): 평일미사 없음
- 12월 30일(금):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12월 31일(토): 송년 미사(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특전, 오후 8시)

■ 유아 세례를 축하합니다.

- 황리오 레오, 황빛나 발레리아, 황로건 테오도로, 김승후 아이다노, 김세아 리디아, 김가빈 프란치스코, 문재윤 마르코, 이시후 노엘
-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남을 축하드립니다.

■ 주일학교 겨울방학 안내

- 겨울방학: 12월 25일 - 2023년 1월 15일
- 개학: 2023년 1월 22일, 오전 9시 30분

■ COVID-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의심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고 집에 머무시다.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합시다.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킵시다.

■ 고해성사 시간 및 본당 신부님 면담 안내

- 주일: 오전 9시 - 9시 25분
- 평일(화·목·금): 오전 9시 - 9시 25분
- 면담: 사무실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